



장인 어른께서 어느새 구순의 나이를 넘기셨고, 장모님 역시 최근 몸이 많이 편찮아 지셔서 저희들은 어쩌면 연세 드린 부모님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고, 또 내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둘째 한얼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가 대학 다니는 동안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 한 적이 있어, 올 24년 겨울 방학은 첫번째 시카고에 있는 한솔이와 한얼이를 방문해 잠시 시간을 갖고, 또 두번째로는 이제 청년이 된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달라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카고에 가,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과테말라 날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추운 시카고

날씨였지만, Great Lake 가에서 기념사진도 찍은 후, 따뜻한 월남 국수 Pho 를 먹은 후, rent 한 차를 가지고 시카고에서 달라스까지 15 시간 넘는 시간을 운전해 아버님 어머니를 뵈러 내려 올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번 겨울에는 만날수 있을 것을 기대치 못했던 손자들을, 또 저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감사하셨습니다. 두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2 천년 전 이 땅에 오셨을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실지로 경험하며 느꼈던 기쁨과 평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그리고 **“놀라운 기묘자이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사 9:6) 이심을 “오랫만에”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해 2024 년, 갑진년 무대의 끝자락이 사라져 가는 이 시간, 저는 부족한 저희들의 선교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해주시고 동역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께 많은 송구스러움을 느끼며 아쉽게 보내게 되는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 월에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에 가서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적 흐름의 유명화에 관해 발표한 선교보고 이 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격려의 답글을 주셨는데, 답변을 지금까지 못 한 것에 관한 죄송한 마음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24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OCMS 에서 발표 외에도 KWMC (Korean World Mission Council)에서도 디아스포라 영역을 맡게 해 주셔서 그 일을 하는대도 많은 열정을 쏟았었고, 또 GP 이사회 모임 준비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고, 또 로잔 대회에도 초청을 받아 한국을 나갔었고, 또 제 영적 아버님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의 소천 10 주년 추모예배때도 참석할수 있었고, 또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와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저는 청년들을 일깨우는 하나의 movement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감사한 것 들 중 하나는 뇌졸중 이후 가르치는 일을 오래동안 쉬었던 SETECA 신학교의 teaching 일도 다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 제 삶의 소명과 의미들을 다시 뭉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강의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신선함과 감동을 경험했지만, 여러가지 사역일을 감당하며 많이 지쳐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생각들은 다른 것이 아닌, 제가 해 왔던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또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어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일이었는지 100% 자신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당연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도 못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올 해 초 동역자들에게 분기별 (4달)에 한번씩 선교편지를 보내야겠다는 굳은 결심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을러졌고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진솔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을사년인 2025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그런 사역의 평가의 시간 (evaluation)을 갖는 것 보다, 부족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신실하게 기도해주시는 것,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주님께서 모든 선교의 동역자님들의 삶, 하시는 모든 일들, 사역 가운데 “놀라우신 기묘자, 모사 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되신 주님께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 마지막 선교편지는 최형미 선교사가 미국의 몇몇 영어권 (English Ministry) 교회에 보낸 선교편지를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다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과테말라 최남용 & 형미, 한솔, 한얼 선교사 가정 드림

**Hello Mission partners in Christ,**

**Greetings from Guatemala! Daniel and I thank God for our partnership with you and continue to pray for the leaders and members. It's hard to believe the last two months of 2024 already approached us. 2024 has been the busiest year since we've been on the field, and please accept our apology for doing a poor job of sharing our mission news. Let me share what's been happening with our ministries for the past few months.**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니엘 선교사와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의 선교의 동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두 달이 다가왔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선교지에 온 이후 가장 바쁜 해였습니다.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사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 SETECA (Seminario Teological de Centroamericano-Central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It has been two years and nine months since Daniel had his stroke. We are grateful for the recovery and the progress he has made, but it is discouraging at times when he cannot recall simple everyday words. For example, Daniel could not remember the word for knife in Spanish when we were having lunch after church one day. Sometimes it takes a while before he can remember the names of family members and close friends. Without being told, people do not seem to notice that he had a stroke, but words and names come and go from his mind at times. While grateful, I know his struggle can be frustrating and affect his confidence.

We continue to pray for a recovery with aphasia as we continue to serve on the mission field.

Daniel went back to teaching this year and successfully finished in September. SETECA follows the Guatemalan school schedule from January to September/October. Many sleepless nights were spent preparing for classes, but the students enjoyed his church history classes. We invited students to our home for one of the classes and a homecooked meal, a treat for many international and Guatemalan students.

다니엘 선교사가 뇌졸중을 겪은 지 벌써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하고 많은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인 단어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교회 예배 후 점심을 먹는 중에 다니엘 선교사는 스페인어로 "칼(knife)"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가 뇌졸중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어나 이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좌절감을 주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이어가며 여전히 실어증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니엘 선교사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 9월에 성공적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SETECA는 과테말라 학사 일정을 따라 1월부터 9월/10월까지 운영됩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많은 밤을 지새웠지만, 학생들은 그의 교회사 강의를 즐겼습니다. 수업 중 한 번은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는 많은 국제 학생들과 과테말라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 Iglesia Restauracion (Basurero community)

This is the entrance to the community of Iglesia Restauracion. There is no parking space inside the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All around are the piles of gathered items from the landfill people have sold to the businesses around the community. An average of \$3-\$5 is earned daily for all-day work.

### Iglesia Restauración (바수레로-쓰레기 매립장 공동체)

이곳은 Iglesia Restauración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안에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매립지에서 모아온 물건들을 이웃 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쌓아둔 더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3 불에서 5 불를 벌고 있습니다.



Beautiful children of Iglesia Restauracion I get to spend time with every week... October 1 is Children's Day in Guatemala. We celebrated with fun activities and yummy food and cake!

매주 시간을 함께 보내는 Iglesia Restauracion 의 사랑스러운 아이들...10 월 1 일은 과테말라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활동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케이크로 축하했습니다!



Kids being kids...playing out on the street inside a "fort" they built.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그들이 만든 Fort ("요새") 안에서 거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Children do not own any books at home, so we started reading time before the children's program each Tuesday.

"Biblioteca" (library) has been a long-time project that we have been planning since Yeilin, a four-year-old girl, was shot playing outside her home. We want to provide a safe place where children can come and read books, play, eat, and worship God.



아이들은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서 매주 화요일 어린이 프로그램 전에 독서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도서관)는 4 살 소녀 예일린이 집 밖에서 놀다가 총격을 당한 이후로 오랫동안 계획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놀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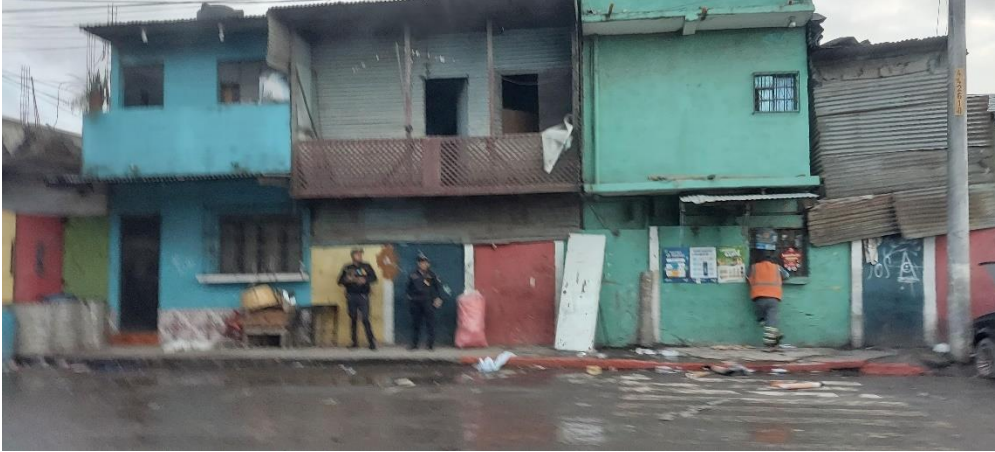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ministry at Iglesia Restauracion in Zona 3 . Due to a high rise in crime, the city has placed police officers 24/7 around every corner of the "basurero" community. While outsiders like me are not targeted, it is dangerous for the locals involved in gangs dealing drugs. We had two deaths this year of children of the church members. One teen attended the children's program when he was younger until he was recruited into a local gang. Many teenage boys turn to gangs because of fast cash. It is a sad reality of the poverty cycle in Central America.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Zona 3 의 Iglesia Restauracion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 당국은 "바수레로" 지역의 모든 모퉁이에 경찰관을 24 시간 배치했습니다. 저와 같은 외부인은 표적이 되지 않지만, 마약 거래에 연루된 갱단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올해 교회 성도들의 자녀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어릴 때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지만 나중에 지역 갱단에 가입되었습니다. 많은 십대 소년들이 빠른 돈을 벌기 위해 갱단에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는 중앙아메리카의 빈곤 악순환에서 비롯된 슬픈 현실입니다.



**MUCHISIMAS GRACIAS, Global Harvest, for your faithfulness to support and pray for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We, too, will continue to pray for God's wisdom and direction for the ministry.**

**Sending hugs from Guatemala,**

**Daniel and Hyungmi**

정말 감사합니다, Global Harvest 교회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변함없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셔서요. 저희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사랑을 담아,

다니엘과 형미 드림